

日韓中制作者フォーラム ソフィアシンポジウム

일한중 TV 제작자 포럼 소피아 심포지엄
日中韩电视制作者论坛 上智研讨会

日韓中 相互理解と テレビプログラムの役割 일한중 상호이해와 TV 프로그램의 역할 日韓中的互相理解与电视节目的作用

◎事前申し込み不要(入場無料)◎

日時 / 2107年9月26日 15:00 ~ 18:00
場所 / 上智大学 10号館講堂

近年の日韓中の3カ国の関係は、政治・外交レベルにおいては、複雑な状況に直面しているが、民間レベルでは観光やショッピングなどの往来はもちろん、文化的な交流は活発に行われ、お互いの関心の度合いも高い。そのような背景にあるのは、ポピュラー・カルチャーにおける交流、特にテレビ・プログラムを通じたお互いの社会や文化に対する関心の喚起だといえよう。

もちろん、外国製番組の受け入れや、番組の海外輸出に関しては、日韓中3カ国の制度的、政策的な違いがあり、時の政治状況や外交関係の影響も受けやすい。

ただ、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など、メディア環境の変化も相まって、それらの違いを乗り越える形で、若者を中心に音楽や芸能、消費文化などの領域で、交流の足跡に出くわすことは多い。また、テレビ・プログラムをきっかけとした観光ブームや「インバウンド」といった経済的な波及効果も、注目を集め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これまで日韓中制作者フォーラムでかわされてきた議論を踏まえつつ、3カ国のテレビ・プログラムが相互にどのような形で受け入れられ、それが、それぞれの相互理解に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のかについて話し合う。さらには3国の共同制作の試みとその成果が、欧米を含む海外にどう展開できるのか、今後の可能性についても、三国の放送現場の担当者、メディア研究者を交えて議論したい。その上で、3カ国の民間レベルでの相互理解の深化に、テレビ・プログラムは何か出来るのか、改めて問い直してみたい。

主催：上智大学メディア・ジャーナリズム研究所／放送人の会
問い合わせ tel.03-3238-4154

최근 한중일 3 개국의 관계는 정치·외교 면에서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민간차원에서 살펴보면 관광과 쇼핑은 물론 생활 속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높다. 그러한 배경 중의 하나로 대중 문화 분야의 교류, 특히 TV 프로그램을 통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들 수 있다.

물론 외국 프로그램의 수용 및 해외 수출에 관해서는 한중일 3 개국에서 제도적, 정책적 차이가 크고, 이는 또한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외교 관계의 영향을 받기 쉽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제도적인 차이를 극복 하는 형태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악과 예술, 소비 문화 등의 영역에서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접할 기회가 많다. 또한 TV 프로그램을 계기로한 관광 열풍과 '인바운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한중일 제작자 포럼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3 개국의 TV 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 수용되고 그것이 상호 이해에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3 개국의 공동 제작 시도와 그 성과가 구미를 포함한 해외에서 어떻게 전개 가능할지 향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3 개국의 방송 현장 담당자와 미디어 연구자가 함께 토의했으면 한다. 나아가 3 개국의 민간 차원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TV 프로그램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재고하고자 한다.

近年来日韩中三国在外交、政治上的关系可以说是尽人意。然而从观光、购物、生活文化等民间交流来看，依然处于比较活跃的状态。同时三国国民间的互相关心程度也比较高。其背景因素是流行文化在各国盛行，特别是通过电视节目这一传媒手段，唤起了各国国民对其他国家社会与文化的关心。

当然由于三个国家的媒体制度与政策的不同导致了各国对于国外电视节目进出口的制约程度也有所不同，甚至偶尔会因为政治局势和外交关系的变动对其产生影响。然而，由于互联网的普及以及媒体环境的变化，使我们得以超越各国制度的不同，在音乐、艺术以及消费文化等领域找到以年轻人为中心的文化交流足迹。各类电视节目所引起的旅游热潮，尤其是境外旅游给各国带来的经济效果也逐渐引起关注。

此次研讨会将在延续历年研讨会议题的同时，就三国的电视节目以何种形式互相引进，并在促进各国相互理解上发挥了什么样的作用这两个议题上，请各国的广播电视现场工作的媒体人以及媒体研究学者发表意见、进行交流。并共同探讨三国合作的可能性以及如何将此类作品向包括欧美在内的海外进行扩展。在此基础上，重新审视为了加深民间的“互相理解”，电视节目能够发挥怎样的作用。

PANELIST



TBS テレビメディア戦略室
担当局次長
DigiCon6 ASIA
ゼネラルプロデューサー
大山 寛恭
오야마 히로야스
大山 寛恭



総務省情報通信政策研究所
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
数永 信徳
카즈나가 노부히로
数永 信徳



立教大学社会学部教授
黄 盛彬
황성빈
黄 盛彬



KBS
ドキュメンタリー・ディレクター
黄 應九
황응구
黄 应九



中国テレビドラマ
脚本委員会副会長
王 麗萍
왕려평
王 丽萍



山西省テレビ
芸術家協会主席
王 雲飛
왕운비
王 云飞

MODERATOR



上智大学新聞学学科教授・
同メディア・ジャーナリズム
研究所所長
音 好宏
오토 요시히로
音 好宏